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27  
2015. March



부산시관광협회가 201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지난달 27일 시내 코모도호텔에서 개최 했다.



부산시관광협회 회장단 일행이 지난 11일 숨겨진 부산의 이야기를 찾아 산만디(산복도로)를 가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안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렌,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셴양, 우저우, 톈진, 우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가고시마, 키타큐슈, 쿠아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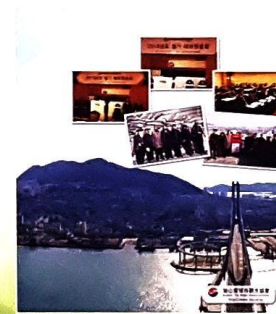


www.aptpo.org



## Contents 2015. March Vol.27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명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김무웅 기자)  
발행일 2015년 3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t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모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표지 \_ 2015년도 부산시관광협회 정기총회

- 04 2015 부산관광진흥계획 5대전략
- 05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 06 부산시관광협회 2015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08 부산시관광협회 2015년도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 10 부산시관광협회 회장단 산만대(산복도로) 현장 답습
- 11 산복도로 시티투어 '만디버스' 추진위 발대식
- 12 울 크루즈관광객 사상 최대 39만 명 부산 찾는다
- 13 2014 부산관광실태조사 남녀 공동1위 해운대
- 14 부산찾는 중국인 관광객 타지역 비해 크게 낮아
- 15 부산시, 의료관광산업 기반 확충 위해 발벗고
- 16 부산의 권문 부산역 일대, 창조경제플랫폼 구축
- 17 해외 도시, 중국관광객 유치위해 특화상품, 서비스
- 18 부산시, 국제회의 유치 마이스산업 현안 적극 추진
- 19 벵스코 올해 경영슬로건 '2015년 미래성장 동력 창출
- 20 부산역 주변, 호텔·오피스텔 복합건물 '쌍둥이 빌딩'
- 21 2015 부산 미래전략캠퍼스 세미나 개최
- 22 부산시, 스토리투어 관광상품 4개코스 개발
- 23 부산소재 인바운드 여행업체 대상, 우수관광상품제 실시
- 24 북항크루즈 전용부두~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잇는 무빙워크
- 25 세가사미, 복합관광시설 '센텀 원' 건립 본격추진
- 26 부산시 야간관광 활성화 위해 산복도로 야간관광코스 개발
- 27 광복동에 부산형 씨가지길, '미화로 문화거리' 조성
- 28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신·증편 경쟁 펼쳐져
- 29 을숙도~양산~물금 잇는 '낙동강 뱃길' 관광자원으로
- 30 부산을 위한 시너지효과 공모 '산복도로 옥상 달빛극장', 부산 명동 해안 관광거리 조성
- 31 올해부터 부산불꽃축제 1만석 유료화 될 전망
- 32 호텔가 소식 : 파라다이스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
- 33 부산지역 곳곳에서 벚꽃축제 즐긴다
- 34 제철의 맛을 품은 기장미역
- 35 통도사 벚꽃길 \_ 함께하! 힐링여행
- 36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2015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이태섭 회장, “전 회원 염원인 관광협회 회관건립에 최선의 노력 다할것”



부산시 관광협회(회장 이태섭)는 지난달 27일 시내 코모도호텔에서 201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광희 부산시 문화관광국장, 이근후 명예회장, 전채 대의원 77명중 33명이 참석했으며 의장취임 17명이었다.



이태섭 관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여러 악재들로 인하여 우리 관광산업 경기는 최악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관광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대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의 드립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취임한지 이제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협회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협회 50주년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시로부터 약 1억원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유치하고 그 불륜을 키워서 협회 재정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도 공정한 경영으로 사무국을 재편질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활동적인 회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에 우리 전 회원의 염원인 ‘부산관광회관’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대의원님 모두와 전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대의원총회는 지난해 우리협회가 추진한 사업실적 보고와 이에 수반되는 회계의 결산 내역, 그리고

고 금년 2015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자세한 설명은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회원의 총의를 대신하는 뜻에서 대의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의원총회가 진지하고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겠습니다.

이어 박성하 협회사무국장은 전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별첨 유인물로 보고한 후, 2014년 사업실적 내용을 별첨 유인물로 보고 했다. 제1호 의안, 의결사항인 2014년도 결산안은 감사를 필한 후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내용을 별첨 유인물로 대체 보고하자 의의없음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2호 의안,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이사회 심의 의결을 부의하자 사업계획 예산안 별첨 유인물 내역을 본 초원국제여행사 유연국 대의원은 사무국직원들 봉급 5% 인상에 대해 “협회가 어려운데 인상을 뒤로 미루자”고 했으나 다수의 대의원들은 그대로 인상시켜주지는데 뜻을 모아 통과 시켰으며 또 “기덕신공항 유치에 우리협회도 힘을 보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 년도 세계 관광의 날이 9월 27일이었으나 11월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대해 “앞으로는 9월중에 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에 대해 박성하 사무국장은 “되도록이면 행사일정을 맞추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수입예산, 지출예산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한 설명한 후 “주요 사업추진계획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3호 의안인 감사 선임 건에 있어 임우제 감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의를 하자 동방여행사 서학영 대의원이 파라다이스호텔 박영호 전무를 추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상태 감사는 연임됐다. 신인 감사의 임기는 2017년 2월 28일(2년)까지다. 총회가 끝난 후 만찬으로 2015년도 정기대의원 총회가 막을 내렸다.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이태섭 회장



▲ 부산시 문화관광 김광희 국장



## 2015년도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 관광진흥사업

- 1.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행사 인센티브 지원
  -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중화권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문화체험장 등 이용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지역 여행업체 공동상품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비장기 노선 해외항공·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 국제 크루즈 입항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 2015 부산관광그랜드세일 행사 개최

- 개요 : 부산국제관광진, 각종 축제, 백화점 세일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와 쇼핑·관광 소비 극대화를 통한 부산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기간 : 2015. 9. 11 ~ 10. 11(1개월간)
- 장소 : 해운대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등이 관광특구 및 특화 지역 중심
- 내용 : 홍보물제작, 각종 매체 홍보 및 이벤트(공연 등) 행사 쇼핑, 숙박, 식음료, 공연, 관광시설 등이 이용료 및 제품 특별할인, 사은품 증정 등

### 국제크루즈 활성화 사업 실시

- 부산입항 크루즈 유입선 부두 환영행사로 부산방문 환영분위기 고조
- 크루즈 관광객 편의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부산 이미지 각인
- 일시·장소 : 전 크루즈 입항시, 크루즈 입항부두
- 참 석 : 시, 협회 관계자, 공연단, 도우미, 통역
  - 환영행사 : 진통공연,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 편의제공 :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판매소운영, 셔틀서비스 운행 등
- ※ 2015 크루즈 입항 계획 : 별첨 첨부자료

### 2015 관광주간 사업

-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국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 봄·가을 관광주간 시행으로 관광수요의 분산 및 내수경제 활성화
- 관광주간 특별 프로그램 마련(정부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따른

### 체험 및 의료 관광상품 개발 지원

-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의료산업협회와 업무 제휴를 통한 의료 관광객 유치 증대
- 부산시의 계획에 따른

### 부산세계꽃축제 및 부산국제영화제 홍보사업

- 부산세계꽃축제 및 부산국제영화제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부산시의 계획에 따른

###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 부산광역시 주최 관광기념품 공모전 후원
- 부산의 특화관광기념품 개발 촉진

### 부산관광사진 공모전 지원

- 부산광역시 주최 관광사진 공모전 후원
- 입상작품 관광홍보책자 및 포스터 자료 활용

### 국내관광 교류협력 네트워크 운영 참여

- 동담권 관광협의회 운영 참여
  - 부산광역시 추진업무 공동 협력
  - 구성 : 부산·울산·경상남도외 관광협회 업계등 구성 협의회 참여
  - 목적 : 부산과 인근지역 관광특색을 관광무트화하여 공동홍보 활동 등 전개
- 사업내용
  -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
  - 관광안내소등 관할지역내의 공공시설에 홍보물 상호배치 홍보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참여
  - 부산광역시 추진업무 공동 협력
  - 구성 : 부산·울산·강원·경상북도외 관광협회 등 구성 협의회 참여
  - 목적
    - 동해안권 관광자원을 결합한 관광상품 공동개발
    - 국내의 효과적인 관광진흥 활동 공동전개

### 산·학 협력사업

- 관광관련학교 우수 졸업생 포상 사기 진작
- 재학생 현장 배치 실습 지원

### 협회 기능 및 운영개선

- 협회위상 제고 및 우수회원 확대 주력
- 효율적인 회원사 경영개선 도모
- 협회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증대

### 회원사업

1. 부산공동상품 개발 운영(·국외)
2. 관광인 자녀 강해사업 실시
3. 관광서비스분야 인력교육센터 운영
4. 항공 및 크루즈 실무교육 실시
5. 회원사 노무관련 직무 교육
6.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소사업 활성화
7.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광고계약
8. 여행업계 경영환경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9. 관광숙박업 지원 강화
10. 관광식당업 육성 지원
11. 업종별 위원회 고유사업 개발 육성 지원
12. 관광진흥추진대회
13. 회원사 각종 실무교육 지원
14. 여행공제회 운영
15. 유관기관 간담회 활성화
16. 회원진북 증진업무 도모
17. 회원사 업무편의 및 관광정보자료 보급 업무
18. 대정부 건의활동 강화

### 홍보 및 출판사업

1. 국내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활동
2. 외국 유력 언론사 초청 홍보활동 전개
3. 국내 주요 관광박람회 부산홍보관 운영
4. 협회 홍보지 발간
5. 관광법규집 발간(보책)
6. 업무자료 제작
7. 관광홍보자료 입수 배포
8. 방송, 신문 등 매스미디어 홍보활동 강화

### 국제협력사업

1. 2015 제18회 부산국제관광진(BITF) 개최
2. 해외관광설명회 및 홍보마케팅활동 전개
3. 국내외 개최 관광박람회 부산 홍보관 운영
4. 해외인문, 여행관계자 초청 팬투어
5. 부산·후쿠오카 「아시아 게이트웨이 2015 공동캠페인」 추진
6. 남동·동북아 국제 크루즈 지원
7. 국제관광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
8. 일본인관광객 유치증대 전략적 마케팅 활동 전개
9. 국제자매협회 친선교류회 개최
10. 국제자매결연 체질 확대
11. 국제자매협회 도시 시민교류방문단 유치사업 추진
12. 신규 국제항공노선 증선 지원 사업 추진
13. 외국의 국제관광진 및 관광설명회 지원
14. 국제관광기구의 협력체제 강화
15. 국제관광인사 영입 및 간담회 개최

###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1. 관광안내소 기능 활성화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국내선 관광안내소
  - 국제이객부두 관광안내소
  - 부산 외국인서비스센터
  - 부산역 관광안내소
  - 고속버스 터미널 관광안내소
  - 남포동부산종합관광안내소(위경관광안내 포함)
  - 기가대교 관광안내소
  - 북항여객터미널 안내소(2015.7월 신설예정)
2. 관광안내원의 업무기능 강화
  - 회원사운영 각종 실무교육
  - 국내·외에서 관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터넷 활용)
  - 수동적·소극적 안내기능에서 능동적·적극적인 안내기능으로 전환
  - 안내소 기능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시행

### 교육연수사업

1. 회원사운영 각종 실무교육
2. 관광종사자 서비스 직무교육
3. 친절환대서비스교육

### 유관단체협력사업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와의 업무 협력체제 강화
2.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 인보사업

1. 사회단체 관련 계도운동 참여
2. 이웃돕기 등 인보활동 전개

### 회의운영

1. 협회 기본회의 운영
  - 대의원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 운영
2. 업종별위원회 운영
3. 전문위원회 운영
4. 기타회의 운영

### 수익사업증대

1. 협회 수익사업 개발 확대
2. 각종간담회를 유료 광고노선화 확대추진
3.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협회금
4. 협회 회원권인기금 증대를 위한 기부금 환상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단 숨겨진 부산의 이야기 찾아 산만디(산복도로) 현장 답습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회장단(회장 이태섭)은 지난 3월11일 부산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 부산 산만디(산복도로) 현장을 찾아 나섰다.

특히 3월6일 국내여행업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순복)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테마관광상품 3가지를 선정했던 터라 더욱 그 행보가 기대된다.

이날 산만디 현장 답사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해운대, 태종대, 남포동 등의 주요 명소들을 벗어나 부산이 가진 근현대사의 아픔과 애절함이 숨어 있는 곳,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일명 산만디를 중심으로 부산의 숨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유치하기 위한 관광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 답사는 흔히 말하는 관광지 사찰이 아닌 순수 관광객 입장에서 일정을 소화하여 불편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반대로 관광사업자의 입장에서 "숨겨진 부산의 이야기"를 팔기 위하여 관광지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등 우리 부산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산 산만디 현장 답사는 상해문-영도다리 도개현장-자갈치시장 종식(생선구이)-현여울문화마을(변호인촬영지)-남항대교-송도해변-암남공원-천마산 해맞이길-최민식 갤러리-감천문화마을-역사의 디오라마전망대-유치환 우체국(까꼬막 게스트하우스)-당산-이바구공작소-김민부 전망대-168계단-우물-동구인물사당장-초량교회와 초량초등학교-담장갤러리-남선참고-옛 백제병원을 둘러봤다.



## 산복도로 시티투어 '만디버스' 추진위 발대식

지난 2015년 3월 20일(금)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산복도로 시티투어 만디버스 추진위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만디버스'는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운영하는 형태로서 만디버스가 운영될 지역의 주민,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하고 전문가와 마을활동가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이 참여하여 '만디버스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만디버스추진위는 발대식에서 공동대표로 이허성(협동조합산만디사람들 이사장), 영동용(부산협동조합총연합회 공동대표), 김진수(서구 암남동 천마마을 회장)를 선임하고,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만디버스협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결의했다.

만디버스는 25인승 중형버스로 부산역을 출발해 동구와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산복도로지역 주요관광지를 경유할 예정이다.

- 운영코스 : 부산역-매죽지마을-자성대-안창마을-성복시장-수정산둘레길-유치환우체국-역사의디오라마-중앙공원-국제시장-임시수도기념관-감천문화마을-비석마을-최민식갤러리-천마산조각공원-암남공원-송도해수욕장-현여울마을-75광장-청학동배수지(봉래산)-청학수변공원-가갈치건어물시장



## 산복도로 상상투어버스, 서구·사하구·영도구까지 순환 추진 시민·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현재 중구·동구 산복도로를 운행하는 상상투어버스노선이 확대추진된다. 시는 우선 현재 토요일 3회과 일요일 2회 부산역을 출발해 주로 동구와 중구 일원 산복도로를 둘러보는 상상투어버스를 평일에도 운행하고 동·중·서·사하·영도구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상투어버스는 2013년 9월부터 주말을 이용해 운행 중이다.

산복도로 문화·관광자원은 ▷안창마을, 유치환의 우체통, 까꼬막 체험관, 장거리기념관, 천지불거리 카페, 이바구 공작소, 168계단, 6·25막걸리(동구) ▷디오라마전망대, 영주동 오름길 모노레일, 산리마을화관, 금수강의 음악촬영(중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비석마을, 아이문화학습관, 기차집 예술체험장, 한미음향복선터, 하우스 프론트 등 다양한 전망대(서구) ▷현여울마을(영도구) 등이다. 이들 장소에 상상투어버스 정류소를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구도 이달부터 3개월간 주말마다 소규모 관광버스(12, 25인승) 두 대로 운영하는 버스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역 내 임시수도 기념거리, 이태석 신부 생가뿐 아니라 이웃한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과 중구 국제시장 등도 코스에 포함한다. 버스투어 참여 비용은 1만 원. 버스는 서구청 광장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 중국과 관련된 스토리 발굴, 중국인 즐겨찾는 관광코스 다양화 시켜야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이 국내 전체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91만2천33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8% 증가하는데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국내 중국인 관광객 총 증가율 41.6%에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1년 47만6천65명, 2012년 59만501명, 2013년 78만1천379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그 숫자가 늘어왔지만 서울과 제주 등 경쟁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시는 부산지역 관광 산업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각 주요 거점 지역과 부산을 잇는 직항 노선을 증편하고, 부산지역 중국 전문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부산을 잇는 직항 노선은 13개. 관광 전문가들

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초저가 항공사가 포함된 직항 노선이 최소 20개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확정된 추가 직항 노선은 2개에 불과하다.

또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영업 중인 중국 전문 인바운드 여행업체가 세 곳에 불과한 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식당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의자식 탁자 시설에 대한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게 관광업계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해양 관광 도시 부산이 가지는 고유한 이미지를 중국인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것도 시급하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부산의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중국인 관광 코스를 다양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며 "중국 내 대형 호텔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등과 제휴한 온라인 마케팅 등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용 기자



## 지난해 한국 찾은 중국인 관광객 600만, 올해 800만 명 육박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었다. 올해는 8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작년 1~12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612만6천865명으로 전년 동기의 432만6천869명에 비해 41.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방문 외국인도 1천420만 1천516명으로 전년 동기의 1천217만5천550명보다 16.6% 성장했다.

지난해 12월 중 10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3년 같은 달보

다 52.2% 증가한 42만 501명이었다. 이 중 특히 한류를 좋아하고 유행에 민감한 20~30대의 비중은 52.4%나 됐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08년 1천262달러에서 2013년 2천272달러로 80.0% 급증했다.

반면 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같은 기간 1천 370달러에서 1천470달러로 7.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일본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천33달러에서 990달러로 4.2% 감소했다.

## 부산시, 의료관광산업 기반 확충 위해 발, 부산 인근도시 협력강화로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부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009년 2천419명에서 2010년 4천106명, 2011년 6천 704명, 2012년 9천177명, 2013년 1만1천22명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등록 의료기관이 모두 288곳,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98곳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가 '의료관광' 분야를 '의료관광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 중심의 '의료관광'을 향대화, 바이오, 임상시험, 헬스케어소재 등과 접목해 산업화하고 부산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나선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치료와 관광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0년 싱가포르와 방콕에 이은 아시아 3대 의료관광도시로 발돋움해 의료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의 의료관광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 개발 예정지(동·서부산, 도심 지역 철도부지 이전 대상시설) 내에 국내외 유명병원, 제약사, 의료관광호텔 유치에 나선다. 의료산업 전반의 정책 제언, 결정, 심의 등을 컨트롤하는 '부산 의료관광추진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관광, 호텔, 관련기관, 대학, 수도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 의료관광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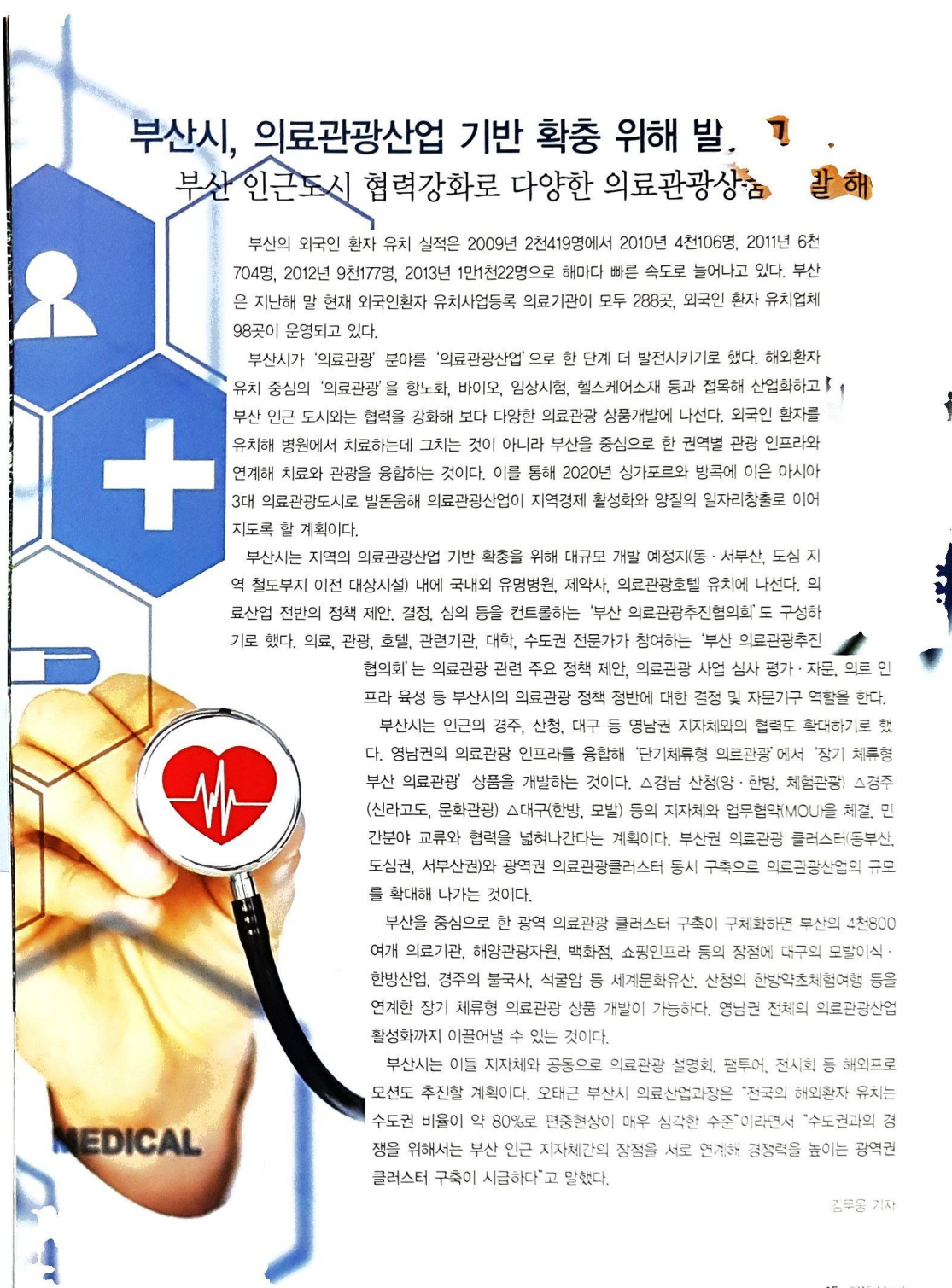
협의회'는 의료관광 관련 주요 정책 제언, 의료관광 사업 심사 평가·자문, 의료 인프라 육성 등 부산시의 의료관광 정책 정반에 대한 결정 및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부산시는 인근의 경주, 산청, 대구 등 영남권 지자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남권의 의료관광 인프라를 융합해 '단기체류형 의료관광'에서 '장기 체류형 부산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경남 산청(양·한방, 체험관광) △경주(신라고도, 문화관광) △대구(한방, 모발) 등의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민간분야 교류와 협력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권 의료관광 클러스터(동부산, 도심권, 서부산권)와 광역권 의료관광클러스터 동시 구축으로 의료관광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이 구체화하면 부산의 4천800여개 의료기관, 해양관광자원, 백화점, 쇼핑인프라 등의 장점에 대구의 모발이식·한방산업,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 산청의 한방약초체험여행 등을 연계한 장기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영남권 전체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의료관광 설명회, 밭투어, 전시회 등 해외프로모션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태근 부산시 의료산업과장은 "전국의 해외환자 유치는 수도권 비율이 약 80%로 편중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수도권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부산 인근 지자체간의 장점을 서로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는 광역권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무용 기자







## 부산의 관문 부산역 일대, 창조경제플랫폼 구축 추진 광장일원 '창조지식터미널' 건립, 입체 공원화로 광장기능 회복



▲ 부산역 일대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이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북항재개발구역 항만, 부산역 역사권, 산복도로 노후주택 밀집지역, 초량동 상업지역 등 3.12km를 재창조하는 사업.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등 5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추진한다.

부산역 일대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이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북항재개발구역 항만, 부산역 역사권, 산복도로 노후주택 밀집지역, 초량동 상업지역 등 3.12km를 재창조하는 사업.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등 5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추진한다.

시는 첫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인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올해 출범하는 사업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정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구. 주민, 전문가, 마일활동가, 시의원, 구의원, 지역 언론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가해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운영한다.

시는 사업 대상자를 주거·상업·관문지구로 나눠 지구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주거지구 사업추진협의회가 지난 달 23일 동구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이어 28일에는 상업지구 사업추진협의회가, 다음 달 초에는 관문지구 사업추진협의회가 잇달아 회의를 갖고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 각 지구 사업추진협의회는 별도로 회의를 갖고 필요할 경우 합동회의를 열어 전체 사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는 창조경제플랫폼 구축 사업을 △부산항만공사·부산해양수산청이 추진 중인 '원도심 연계 보행데크 설치'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부산지역 철도시설재배치'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혁신센터 건립'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특히 부산역 광장 일원에 '창조지식터미널'을 건립하고 입체공원화하는 '창조지식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계공모 운영 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설계공모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역 입구에 설치돼 있는 2층 진입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현재 공사 중인 지하보행통로를 1층 출입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코레일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부산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광장 기능을 회복하는 부산역 광장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문화예술광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무용 기자

## 러시아·독일·영국·프랑스 등 해외 도시들, 중국 관광객 유치위해 특화상품, 서비스 발굴 열 올려

해외 도시들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특화 상품, 서비스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러시아 도시들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홍채관' (허명의 신지를 여행하는 것) 상품 개발에 나섰다. 중국의 허베이 마오쩌둥이 다녀간 도시, 중국인들도 인정하는 시화주의 지도자 레닌과 관련된 도시를 상품으로 묶는 식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함께 레닌의 명칭지, 도미자로 알려진 스웨덴, 핀란드의 도시들까지 이런 상품 개발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는 상징성이 문을 닫는 일요일에 런던으로 쇼핑하러 떠나는 중국인들을 잡기 위해 100년 역사의 일요 휴무 전통까지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일도 중국인 후호를 가늠해 고부기까지 호화 여행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특유의 향토문화를 내세워 중국관광객 접기에 나서고 있다. 인기 드라마 '다운타운 애비' (20세기 초 영국의 백작가 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시대극)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

특히 상품 개발도 활발하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의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도 최근 기존 3년이었던 중국인 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했으며, 취업 면제폭 한도를 늘리고, 온천 관광과 의료검진 같은 중국 부유층 상대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2~3일 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행사가 비자 신청을 받아 공관에 가져오면 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하는데 7~1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치 입을 내다 보지 못하는 한국의 관광정책이 한심할 따름이다.



## 연초부터 해외여행객 사상 최대 기록 원화 상승, 국제유가 하락으로 당분간 지속될 듯

연초부터 해외여행객이 월 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월 해외 여행객은 183만453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146만8903명보다 24.9% 늘어났다. 이는 역대 월별 내국인 출국자로는 최대치로, 1월 방한한 외국인의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개 월 기준으로 해외여행 성수기는 피서철인 7월과 8월이다.

이처럼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원화 강세가 계속된 데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이 중심으로 국내에 많은 저비용 국제항공노선이 취항한 점도 한 요인이다.

지난달 내국인 출국자를 연령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41~50세가 37만9788명으로 가장 많고

>31~40세 30만778명 >51~60세 30만334명 >20세 이하 30만1220명 >21~30세 28만3176명 >61세 이상 11만9398명 등의 순이다. 반면 1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1만7054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8.8% 늘어났다.

특히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방한이 32.9% 증가한 39만4345명으로 집계됐으나 일본인 관광객은 한·일 정부 간 외교 갈등과 연화 약세 탓에 18.9% 줄어든 13만9632명을 나타냈다. 대만과 태국 관광객도 겨울철 관광 수요 증가세의 영향으로 각각 10.0%, 18.7%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원화 상승이 이어지고, 유류할증료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로 떠날려는 내국인 출국자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부산시, 국제회의 유치, 마이스산업 현안 적극 추진 2015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확정 발표



▲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열린 부산 투자설명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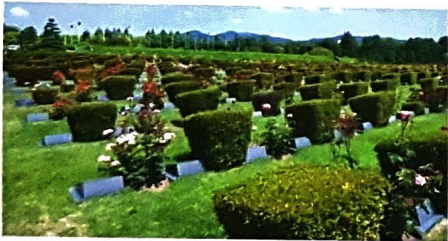
부산시는 최근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를 열고 '2015년 마이스(MICE)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은 부산의 MICE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반영과 아시아의 MICE 중심도시로 도약할 4대 전략, 11대 과제, 29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MICE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 파급효과가 커

부산시의 '5대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부산시는 4대 전략사업으로 △MICE산업 기반 강화 △MICE 유치역량 강화 △MICE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MICE 인프라 확충 등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MICE기업 육성, 특화 MICE 육성, 전문인력 양성, 기업 인센티브 강화, 연계 관광상품 개발, 시민 참여 제고, 도시마케팅 및 네트워킹 강화, 사후평가·관리 강화, 시설 집적화·확충, 기업 지원체계 확립 등 11대 MICE 관련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 한해 벅스코 부대시설 부지개발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MICE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연구용역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계속사업으로 민간주관 MICE 행사와 지역 기업 마케팅 지원, MICE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역특화 유망컨벤션 전시회 육성, MICE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중대형 기업 인센티브 유치 역점 추진, MICE 도시마케팅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등을 시행한다.

## 유엔기념공원 주변일대, 국제평화관광지로 조성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 일대가 국제관광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최근 UN공원 주변의 유엔평화기념관과 문화회관, 박물관 등의 시설과 연계하고 청소년 국제평화캠프, 유엔빌리지 등 평화와 융합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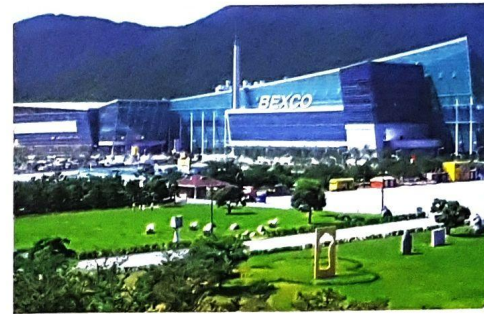
이번 용역은 ▲평화공원<=>유엔요지 중심 상징축 연결(상징 게이트 설치) ▲유엔활동 기념 및 평화활동 소개·유엔평화 조형(성지화) ▲유엔기념공원~박물관~문화회

관~기념관(당곡공원) 연결로 정비 ▲해안순화도로망과 연계한 접근로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유엔기념공원 주변 정비 및 유엔 빌리지 ▲청소년 국제평화캠프 등 유엔평화와 융합된 콘텐츠 개발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내 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처, 산림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국비지원 사업을 연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엔기념공원은 세계유일의 유엔성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시설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콘텐츠 개발로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평화관광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광안대교, 오륙도, 북항재개발 등의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지로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벅스코(BEXCO), 올해 경영슬로건 '2015년 미래 성장 동력 창출'로 정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벅스코(BEXCO)가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일자의 창출에까지 시너지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벅스코는 회사 비전인 '고객 감동을 우선하는 월드클래스 전시컨벤션센터' 실현을 위해 올해 경영슬로건을 '2015년 미래 성장동력창출'로 정했다. 외형적 성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담은 것이

다. 벅스코는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등 1천 건이 넘는 행사를 개최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이 국제협회연합(UIA)의 세계 마이스도시 평가에서 아시아 4위, 세계 9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벅스코는 이 같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시장 가동률 50% 달성, 국제회의 90건 이상 유치, 민간 전시컨벤션 지원 확대 등을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벅스코가 주관하는 전시회의 내실을 다지고 해외진출 등 국제화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영역 개척과 신규사업 개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 사회적 책임경영(CSR) 확대라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벅스코의 시설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문화 공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벅스코는 지역 전시컨벤션산업 지원을 통해 마이스산업이 보다 활성화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부산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해 중국관광객, 승용차 70만 대 수출효과 가져와 612만7000명 방한, 116% 증가...1인당 평균 여행비용 2204.5달러

지난해 중국관광객이 승용차 70만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를 찾은 요우커는 612만7000명으로 전년도의 283만7000명보다 무려 116%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중국인 비중도 전년도의 35.5%에서 43.1%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요우커가 창출한 국내 생산유발 효과는 1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요우커 1인당 303만4257원에 달하는 액수다. 현대차가 미국에 판매한 그랜저·쏘나타·아반떼 등의 평균가격이 2만4284달러(266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요우커가 자동차 69만

8200만 대의 수출 효과를 낸 셈이다. 또 요우커 방한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는 34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요우커 1인당 0.06명이 일자리를 만든 셈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의 경우 요우커가 720만 명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생산유발효과도 22조 원으로 경종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요우커는 1인당 관광비 지출도 외국인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관광공사가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화권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여행비용은 2204.5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 부산역 주변, 호텔·오피스텔 복합건물 '쌍둥이 빌딩' 착공 국제관광 허브 및 윈스톱 비즈니스 타운으로 변모 될 듯



▲ 부산 동구 부산역 옆에 공사중 시작한 호텔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인 '아스티 호텔&레지던스' 투시도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쌍둥이 빌딩이 부산역주변에 들어선다. (주)아로시코리아 측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호텔과 오피스텔 복합건물 '아스티 호텔 & 레지던스' 공사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역 옆에 건립되는 이 건물은 지하 5층~지상 24층, 연면적 5만6240㎡ 규모로 호텔 380실과 오피스텔 379실, 상가 36실로 구성된다. 부산에 호텔과 오피스텔이 함께 입주하는

쌍둥이 빌딩은 처음이다. 빌딩 꼭대기층에는 두 건물을 연결한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총 16개 타입으로 전용면적 기준 22.66㎡~72.15㎡의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된다. 원룸(329실) 투룸(30실) 쓰리룸(20실)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스티 호텔&레지던스가 들어서는 부산역 일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배후지역으로 국제관광허브 및 윈스톱 비즈니스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는 7월에 부산 북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보행덕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보행덕이 설치되면 부산역과 북항이 연결돼 부산역 주변은 관광 비즈니스 상업 교통기능이 결합된 부산의 새로운 중심 상권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스티 호텔&레지던스 분양팀 관계자는 "부산역 입구에 위치해 북항 일대 종사자와 서울에 주거를 둔 부산 직장인들의 배후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무웅 기자

## 동부산관광단지 오시티(O' City)로 명칭 확정돼



동부산 관광단지의 새 명칭이 '오시티'로 확정됐다. 오시티(O' City)는 원을 형상화한 것으로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동부산관광단지 내 천혜의 절경을 간직한 '오랑대'와 용녀와 미량 스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사랑대'의 앞글자를 딴 '오시시티'를 줄

여서 표현했다. 감탄사 '오'와 'Oh'를 의미하기도 한다.

2009년 동부산관광단지 콘셉트 및 명칭 시인 공모를 시작으로 지난 1월 내부 2차 선호도 조사까지 최종 후보작은 '큐리오시티', '오시티', '부산오시리아', '동부산투어플렉스', '오션힐파크', '오이소비치리조트' 등 6개. 하지만 지난 1월 6개 후보작에 대한 내부 2차 선호도 조사 결과 동부산투어플렉스(30%), 오시티(29%), 큐리오시티(17%)로 후보작이 좁혀졌다. 동부산투어플렉스는 단순 단어 조합이라는 이유로 후보작에서 탈락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오시시티가 최종 명칭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 오시시티와 연계한 BI(Brand Identity)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오시시티가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15 부산 미래전략캠퍼스 세미나 개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저가 항공중심 직항노선 증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관광콘텐츠 마케팅 확대 등 논의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캠퍼스위원회, 마이스부산이 주관하는 '2015 부산 미래전략캠퍼스 세미나'가 지난 12~13일 벵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 세미나는 '트렌드를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 벵스코, 에어부산, 한국관광공사, 삼진어묵 등 총 26개 기관 및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의 정용문 지사장은 중국 관광시장의 트렌드와 이에 따른 부산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 지사장은 앞으로 중국 관광시장은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중국의 젊은 세대, 이른바 '바리허우(八零後)'가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이미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자유로운 여행과 웰빙을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 지사장은 부산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여행관광 중심에서 젊은 배낭 여행객 등을 타깃으로 한 개별자유여행 위주로의 관광 산업 전반의 변화가 필

요하다고 밝혔다. 비자발급 절차의 간소화, 저가 항공 중심의 직항 노선 증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관광 콘텐츠 마케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운대와 광안리, 동백섬 등 부산이 가진 자연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해 '친환경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중국에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내 대기업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공기를 찾아 해외 여행을 떠나는 중국의 젊은 웰빙족, 이른바 '폐 세력 관광객'을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임성택 집행위원장이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축제를 부산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점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임 집행위원장은 광복로 주변에 인접한 동부산 공원과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등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늘어난 만큼 해외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트리 장식과 체류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관광산업활성화 위해 2곳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권 내 줄 방침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도 싱가포르와 같이 유명 복합리조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오픈 카지노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2곳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권을 내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11월까지 공식 사업 계획을 접수한 뒤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복합리조트에는 호텔·쇼핑 및 회의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선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한경연 한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의 카지노를 복합리조트 부대 수익사업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총 수익의 70~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가 2005년 600만 명에서 지난해 1천420만 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지만, 관광수지는 2013년 기준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점에 주목해 앞으로 마이스 산업에 초점을 두고 한국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시, 스토리 투어 관광상품 4개코스 개발



된 교회로 1893년 설립)~168계단 (옛날 부산항에 배가 들어오면 석 착순으로 하는 하역일을 얻으려고 앞다퉈 내려가던 길)~김민부 전방 대~당산~이바구공작소, >4코스

부산시가 최근 '스토리 투어 관광상품' 4개 코스를 개발해 국내외 수학여행단과 현장체험학습단 등을 유치한 결과 33회에 걸쳐 1천250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시가 개발한 4개 관광코스는 1코스 '영도다리를 건너다', 2코스 '용두산을 올라 부산포를 보다', 3코스 '이바구길을 걷다', 4코스 '국제시장을 기웃거리다'이다.

>1코스는 영도다리~수리조선소길~봉래시장~남항시장~어묵전시장, >2코스는 관수옥(초량왜관의 우두머리인 관수가 머물던 곳)과 초량왜관 터~광복로~용두산~근대역사관~대각사(1894년 일본 히가시촌 간사의 부산 별원으로 생긴 사찰·호정교단의 중심 사찰)으로 짜졌다. >3코스는 옛 백제병원(부산 최초의 개인 종합병원)~초량교회(부산에서 가장 오래

는 부산국제영화제(PIFF)광장~먹자골목~국제시장~보수동 책방골목~부평 광동시장~아트타운으로 정했다. 코스마다 이야기편(스토리텔러)이 배치돼 관광객과 함께 걸으며 역사와 문화자원에 얽힌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산시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가량 근대역사 문화 자원들을 연계한 도보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체험을 희망하는 단체와 관광객은 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화 국제시장 흥행을 활용해 주요 촬영지를 투어코스로 개발, 총 5개 코스로 스토리투어 상품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어가 가능한 스토리텔러 확보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부산 소재 인바운드 여행업체 대상, 우수관광상품제 실시 부산시관광협회·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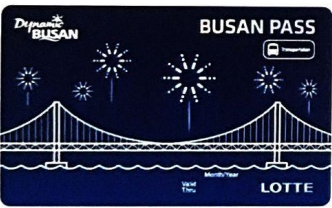
부산시와 관광공사는 우수관광상품제를 실시한다. 저가 관광상품을 지양하고 고품질의 부산관광상품을 개발해 외래 관광객의 만족도 및 체류시간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수상품인증제는 부산 소재 인바운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특히 공사는 현지 광고비까지 지원해 부산지역 여행사들이 우수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관광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산소재 1~3급 호텔 2박 이상, 유료체험 2개소 이상, 부산 전일관광 2일 이상(일 8시간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수관광상품 인증 업체에 한해 크루즈, 전세기, 특별테마 상품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인증제는 관광상품의 독창성, 가격합리성, 사회공헌성, 시장성,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되어 2년간 부산의 우수관광상품으로 등록·판매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00만원 상당의 해외 현지 광고비와 분기별 누적 모객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1000만원, 1000명 이상일 경우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세부설명자료가 첨부된 관광상품설명서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시행공고는 부산시관광협회(www.bla.or.kr)와 한국여행업협회(www.kata.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부산시, 관광객용 부산관광카드 출시 선불카드 형태 내국인도 이용, 5~20% 할인혜택



부산시는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불카드 형태의 부산관광카드를 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별도로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부산의 교통시설을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각종 물건을 구매할 때도 5~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기존 '코리아패스 부산관광카드'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선보인 부산관광카드는 내국인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김해공항과 부산역,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관광안내소에서 선불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관광객 한 명당 50만 원짜리 카드 두 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를 구입해 사용한 뒤 부산을 떠날 때 관광안내소에 카드를 반납하면 자동으로 정산된다. 사용한 금액만큼 신용카드 대금에 포함해 차후 청구되는 방식이다.

시는 부산관광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10일까지 구입 관광객에게 가맹점 할인이용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관광에 특화된 선불카드를 출시한 것은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시가 처음"이라며 "관광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가맹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경보제공 앱 꼭 깔아야

해마다 해외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정작, 해외여행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주변에 종종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읽어보자. 알아두면 편리한 안전 해외여행 팀!

2015년 2월 현재 여행금지국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이다.

### ●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여권 분실 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든다. 그리고 재외공관에 관련 서류 제출,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행경비를 분실·도난 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경찰서에 의뢰한다.

수하물 분실의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 분실신고서를 작성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 준다. 그 외 인질·납치, 테러·폭발, 마약 소지 및 운반 등의 문제에 대한 사전 숙지시행이나 대응책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정리돼 있다.

영사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는 해외 사건·사고 접수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인원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 02) 3210-0404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 : +822-3210-0404 +800-2100-040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해외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꼭 설치하자. 여행경보제도와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과 사고현장 촬영 및 녹취 기능 등 해외여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 ● 여행경보제도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에게 안전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여행경보제도가 있다. 여행주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이렇게 4가지 단계다.

## 북항크루즈 전용부두 ~ 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잇는 무빙워크 설치키로



▲ 오는 7월 개장 예정인 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부산항만공사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와 새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무빙워크를 조속히 설치키

로 했다. 크루즈 관광객들이 크루즈 선내에서 간단한 수속 절차를 밟은 후 부두 앞에서 버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1km 가까이 걸어야 하는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키로 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시일 내에 크루즈 부두와 터미널을 잇는 무빙워크 설치 예산을 확보, 840m 구간에 곧 착공키로 하고 준공 때 까진 셔틀버스 운행키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크루즈 부두에서 터미널 건물 내 출입국 보안검색 시설인 CIQRkw 840m에 이르는 무빙워크를 설치하는데 공사비만 237억 원, 공사기간은 22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 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국제현상공모 '상호소통하는 부두' 당선작으로 뽑아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



▲ 상호소통하는 부두 조경도 (원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국제현상공모'에서 (주)신화건설, (주)삼안, (주)건일엔지니어링, 대아종합조경(주), (주)비오이앤씨의 '상호소통하는 부두 (Interactive Pier)'를 당선작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부산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사업지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핵심 구상이다. 부산역과 친수공원을 텍으로 연결하고 도시철도 중앙동역에서 친수공원을 잇는

지하통로를 개설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친수공원에서 자갈치시장을 오가는 모노레일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관수로를 따라 모래 해변과 자갈해변을 조성하고 북항 재개발사업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5곳에 설치한다.

BPA 관계자는 "당선작은 과도한 시설 대신에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도시공원의 활력을 살린 게 특징"이라며 "원래 부두였던 장소와 그곳 부두노무자의 삶(추억)을 연결해 스토리텔링하고 부두의 흔적을 보존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임을 제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당선작에는 25억 원 상당의 친수공원 실시설계 권한이 주어진다. 북항 재개발 친수공원은 전체 재개발사업지역(153만㎡) 가운데 28만㎡.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사업 친수공원을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국제 현상공모를 진행했다.

## 세가사미, 복합관광시설 '센텀 원' 건립 본격 추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맞은편에 복합관광시설 건립 사업이 사업승인 2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복합관광시설인 '센텀 원' 건립을 추진 중인 일본계 컨소시엄 그룹 세가사미는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9천911㎡에 달하는 사업예정부지 주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세가사미는 총 사업비 4천685억 원을 들여 312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470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국제회의시설, 테마파크 등을 갖춘 지상 33층, 지하 7층 규모의 복합관광시설을 건립하는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2013년 3월 11일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러나 세가사미는 사업 승인 2년째가 되는 지난달 말까지도 호텔 운영사 선정 문제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투자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가 승인받은 날로부터 2

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 계획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가사미의 부산지역 협력사인 UEC 코리아 관계자는 "펜스 설치 뒤 터파기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께 공사를 본격화 한 뒤 2018년 5월 무렵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센텀 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 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는 지난 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센텀 원 운영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세가사미와 체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복합관광시설인 센텀 원은 일자리 창출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일대가 향후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사포 방파제 발광다이오드(LED) 야간경관 조명 설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명물로...



▲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에 '야광 방파제(LED) 조명'을 새로이 관광 명물로 부상한 청사포이다.

부산시는 청사포의 방파제에 발광다이오드(LED)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부산 최최인 야광 방파제'는 흥등대와 백등대가 있는 방파제 100m 구간이다. 사업이 오는 6월께쯤 바다를 향해 은은하게 빛나는 방파제를 볼 수 있다.

전체 예산 1억4500만 원을 들인 이번 사업은 청사포

일대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로 새로운 관광 명물로 뜨면서 추진됐다. 낮뿐 아니라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시는 어선 출항지라는 특성상 화려한 조명보다는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을 선택해 어선의 안전을 고려했다.

조명뿐 아니라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한 벽화 타일도 방파제에 설치된다. 시는 조개구이로 유명한 청사포의 특징을 담은 조개와 어부 그림이 그려진 타일로 방파제를 꾸민다. 조명 사업과 별개로 타일 설치 사업 예산은 4억 원을 책정했다. 타일 설치 작업은 오는 5월 마무리된다.

청사포 방파제 개선 사업은 2009년 부산시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했다. 그동안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새로 짓거나 보수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마을 산책길에 가로등을 설치했다. 방파제를 꾸미는 사업은 조개구이를 먹기 위해 들어오는 관광객 이외에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찾는 사람들의 왕래가 찾아지면서 본격 추진했다.

## 부산시, 야간관광 활성화 위해 산복도로 야간관광 코스 개발

시는 부평깡통야시장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한 것을 계기로, 인근 산복도로 지역을 야간관광 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산복도로에서 북항을 바라보는 야경뷰를 홍보하고 부평야시장의 먹거리와 접목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최근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인근 국제시장에도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공간을 조성,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민간 시티투어버스로 8대 증설한다. 현재 부산에는 11대의 시티투어버스가 운행 중이다. 기존 시티투어 버스가 성수기 때

는 수량이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테이빙이 운영 업체로 선정됐다. 시 관광마이스과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증설 원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영도대교 복원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맞춰 남포동 초재상가도 정비한다. 상가 점포 디자인과 외벽 등은 과거 분위기와 역사성을 간직하면서도 깔끔하게 바꾸는 한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산 고유의 관광자원과 역사성을 결합한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운대 야경, 부산관광 필수코스로 떠올라

해운대 야경이 홍콩 못잖은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운대아이파크와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마린시티의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마린시티 일원이 홍콩의 센트럴 지구 같은 환상적인 야경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 복합 마리나시설 '더베이 101'도 미디어 파사드와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휘황찬란한 밤 풍경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일출, 요트경기장 등 기존의 '해운대 12경' 외에 '해운대 야경 7선'을 새롭게 선정, 사계절 및 야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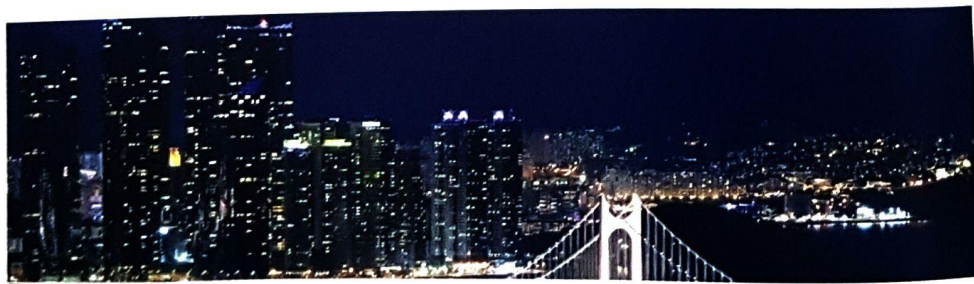
SNS방문자, 관광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달맞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선착장에서 보는 마린시티 △장산에서 내려다보는 센텀시티 등 야간명소 7곳을 선정,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동백섬, 영화의 거리, 달맞이 언덕에 이르는 구간을 밤 시간대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야경 투어 지도'를 만들고, 안내 가이드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마린시티~요트 경기장에 이르는 해운대 앞바다를 요트로 운항하며 해운대의 일몰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경 선상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천혜의 바다와 어우러진 초고층 아파트 및 상업시설에 광안대교, 영화의 전당 등 야간 경관과 조화를 이룬 수려한 건축물까지, 해운대는 세계적인 야경 명소로 부상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야경 투어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해운대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광복동에 부산형 쌈지길, '미화로 문화거리' 조성



중구 광복동에 '서울 종로구 인사동 쌈지길'을 본뜬 '부산형 쌈지길, 미화로 문화거리'가 조성된다. 시는 광복동 소재 동주여고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학교법인 석파학원과 학교 부지 매입 협상을 본격화 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 학교를 사들이 인사동 쌈지길 처럼 가칭 '미화로 문화·패션·젊음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동주여고 건물 내 계단과 복도를 길처럼 연결하고 교실 등에는 의류점, 전통공예품점, 생활용품점, 먹거리 시설 등을 입주시켜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거리를 현재 단절된 미화로와 용두산공원을 잇는 길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석파학원 측도 그동안 도심에 있는 학교의 이전을 검토해온 만큼 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문화거리 조성에는 학교 매입에 따른 보상비 등 182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7월까지 부지매입 협의와 공유재산 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8월부터 증·개축 공사를 거쳐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 상업지역 노천카페 거리 조성 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이색 명소로 떠오를 것

부산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용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뉴욕 42번가나 런던의 소호지구같은 이색 노천 카페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해운대 관광특구지역 외에 해운대신시가지의 중심상업지(17만1천597㎡)에서도 음식점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를 적용, 옥외영업 구역을 확대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해운대구가 처음이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또 옥외시설에서 조리할 수 없고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도 뉴욕 맨해튼의 42번가나 런던의

소호지구, 파리의 생제르맹 광장과 같은 노천 카페거리가 조성된다면 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이색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신·증편 경쟁 펼쳐져 김해공항 이용객 1천만명 돌파, 가덕 신공항 건설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은 개항 38년 만에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신·증편 경쟁과 함께 가덕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10월 부산~후쿠오카 노선을 주 14회에서 21회로 증편한 데 이어 부산~오사카 노선을 주 14회에서 18회로 늘렸다. 또 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주 7회에서 10회로 늘리고, 가오슝 노선도 주 4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지난달 7일에는 부산~중국 옌지 노선(주3회)에 신규취항하는 등 중화권 공략에도 적극 나섰다. 에어부산은 오는 4월 1일에는 부산~장자제(주 2회) 4월 7일에는 부산~베트남 다낭(주 2회)에

신규 노선을 띄운다. 오는 7월부터는 부산~괌(주 4회) 노선도 신설 운항할 계획이다.

제주항공도 부산을 중심으로 일본을 포함한 국제선 신규 취항과 기존 노선 증편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4월 △부산~오사카(주 14회) △부산~후쿠오카(주 7회) △부산~타이베이(주 7회)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부산~광노선을 주 2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겨울철 수요 부진으로 운항에 들어갔던 부산~중국 스자좡(주 2회)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부산시는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에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해국제공항, 동남권 국제관문으로 위상 드높혀 국제선 월 50만명 돌파, 증가율 인천공항 넘어섰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이 동남권 국제관문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김해공항은 지난달 개항 후 처음으로 국제선 이용객 월 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내·국제선 이용객 1천만명 달성에 이어 동남권 중추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인 것이다.

김해공항의 지난 1월 국제선 이용객은 50만8천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8.1% 증가했다. 국내선 이용객도 45만9천명으로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은 같은 기간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13.9%)을 크게 넘어선 것.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노선별로 대양주(괌, 사이판)의 증가율이 183%로 가장 높았다. 동남아와 중국 노선이 각각 21.1%, 20.3% 증가했다. 이는 중국 옌지(에어부산), 괌(제주항공) 등의 신규취항 노선이 증가했고, 동남아 노선(코타키나발루, 싱가포르) 부정기편 운항 등으로 겨울방학 기간 가족단위 여행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해공항은 김포, 제주 노선 등 국내선 비중이 국제선보다 높은 공항이었으나, 최근 국제선 이용객 급증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해공항이 단순히 지역 거점공항을 넘어서 동남권의 국제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해공항은 최근 진에어,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OC)의 잇따른 국제선 취항으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다시 다른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 올 들어서만 진에어, 에어아시아티 등 2~3개의 항공사가 김해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검토 중이다.

김해공항의 국제적 관문기능이 커짐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해공항은 국내에서 인천공항 다음으로 많은 국제선 여객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국내 제2관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우용 기자

## 을숙도~양산~물금 잇는 '낙동강 뱃길' 관광자원으로



▲ 부산 을숙도~양산 물금을 잇는 뱃길과 주변 일대를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국제자원으로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위장한 낙동강 생태탐방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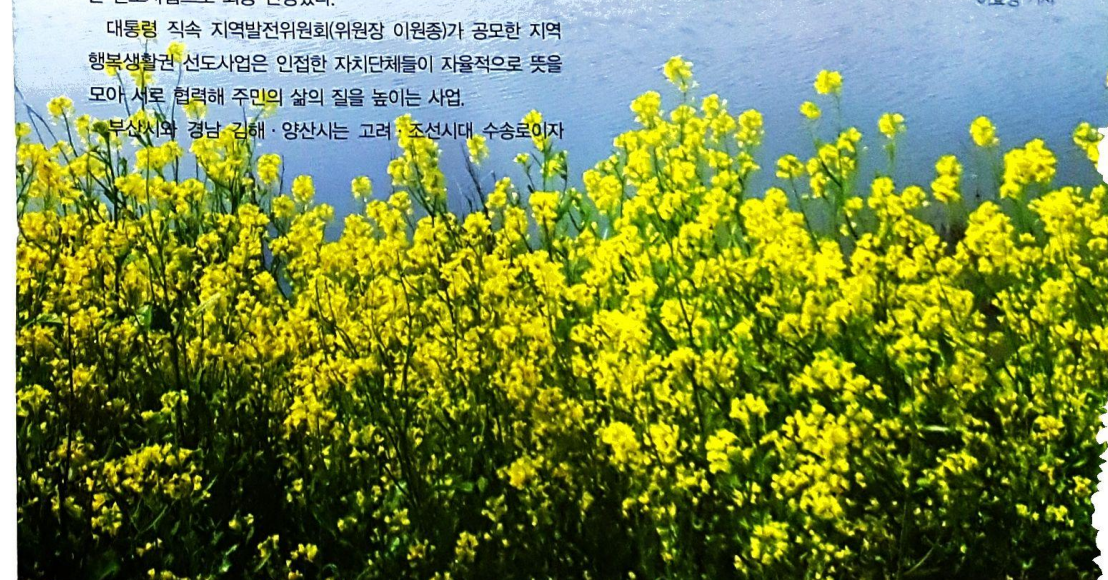
외국과의 교역로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낙동강 뱃길을 복원,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기회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을숙도~물금 구간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취항, 관광코스 개발에 나서 이번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부산시와 김해·양산시는 올하반기부터 오는 2017년까지 국비를 30억원까지 지원받아 낙동강 뱃길 주변에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벌인다. 우선 생태탐방선 선착장 일대에 지역 특산물인 화훼, 산딸기, 매실, 미나리, 김, 조개, 붕어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침. 부산 삼락오토캠핑장, 김해 생림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도 운영 해 주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탠다. 온 가족이 함께 도심에서 벗어나 녹여과 어로체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능어촌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낙동강 뱃길을 따라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생태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과 관계자는 "낙동강 뱃길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김해·양산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낙동강 뱃길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시·도간 성공적인 협업모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기자



## 부산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산복도로 옥상 달빛극장', '부산 명물 해안 관광거리 조성' 최우수작으로 뽑혀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최근 마무리한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총 910건의 시민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과 '부산 명물 해안 관광거리 조성' 등 2건의 최우수작을 가려냈다고 최근 밝혔다.

'산복도로 옥상 달빛 극장'은 부산 산복도로만의 특징인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옥상 주차장을 야외극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영화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창의성이 뛰어난 점이 부각됐다.

옥상달빛극장은 동구 산복도로 옥상 주차장을 이용한 영화 상영을 통해 부산역으로 여행의 첫발을 내딛는 내·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산복도로의 유동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 명물 해안 관광거리 조성'은 동경의 아사쿠사 센소지 거리, 대안 지우펀 거리처럼 부산만의 명품 해안 관광명물거리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관광도시 부산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안 관광거리 조성은 부산의 해안선과 자연 경관이 조화된 관광 상가 거리를 만들어 부산에 온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꼭 둘러보고 가고 싶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가 직접 평지의 상가거리 부지를 조성, 시민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해 기념품과 잡화, 간식거리 소핑 거리를 만들자는 안 △달맞이길~송정~대변~일광을 잇는 해안가 자연의 경관을 살린 산책로를 따라 먹거리와 기념품 소핑 거리를 조성하자는 안 △해안가 넓은 공터에 선물과 기념품, 특산품, 먹거리 간이 포장마차식 삼점 거리를 조성하는 안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산 경제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해운대 하이빵', '해운대 달맞이빵', 지역대표 관광상품으로



'해운대 하이빵'과 '해운대 달맞이빵'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운대구는 시범 생산 과정을 거쳐 해운대 하이빵과 해운대 달맞이빵을 본격 시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보름 동안 시범 판매 기간에 부산 기장군 롯데몰 동부산점 등 10곳의 판매처에서 두 빵은 총 535박스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별도의 판매단을 만들어 매출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이빵, 달맞이빵은 해운대빵 공모에 당선된 후 체계적인 관리를 거쳤다. 맛은 물론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빵모양까지 수차례 관광객 의견을 거쳐 지금의 빵 모양과 맛이 나왔다. 하이빵은 해운대구 지도 형상을 빵에 담았으며, 달맞이빵은 달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구는 지난해 6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모래축제 기간에 무료 시식회를 열어 맛을 보완했다. 또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호텔 콘도 관광기념품 판매점 아쿠아리움 등 판매처를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두 빵의 생산처인 프림준과 금화푸드는 앞으로 인터넷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화푸드 측은 "지난달부터 서울지역 백화점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평이 좋아 매출은 더 늘 전망이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부산불꽃축제 1만석 유료화 될 전망

부산불꽃축제의 일부 관람석이 올해부터 유료화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축제 유료화 조처는 지역 대표 축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확산하겠다는 부산시의 전격이다.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10월 열리는 제11회 부산불꽃축제부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의 전체 10개 구역 관람석 중 1개 구역(7000~1만 석)에 대한 유료 운영 ▷내년에 열리는 제17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 유료 콘텐츠 도입 등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 이던 축제조직위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체제 개편 과정을 거쳤다.

부산불꽃축제가 유료화를 도입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해수욕장 상가 등과 연계, 좌석당 3만~5만 원의 관람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좌석을 1만석으로 잡으면 3억~5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축제조직위는 유료화 좌석을 도입하는 근거로 ▷좌석 확보를 둘러싼 관객의 불편을 덜고 ▷외지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며 ▷지역 축제가 관광상품으로서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것을 꼽았다. 축제에만 끝나지 않고 수익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스폰서 석의 경우 이미 스폰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좌석으로 제공해 온데다 여행사를 통해 제공해 온 외국인 좌석을 명실상부한 관광상품화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찬반 논란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반대 측은 불꽃축제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무려로 가야 하며 자칫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시 문화관광 관계자는 일반시민에 대한 관람 제한은 없으며 오히려 접근성이 없던 외부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축제의 관광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또 제20회 부산바다축제는 8월 1일부터 8일간 해운대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문화축제인 제8회 부산항축제는 오는 5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하고, 제16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8월 7일부터 3일간 삼락생태공원에서 열기로 했다.



## 부산 대표, 불꽃·바다·부산항 축제 일정 확정

부산시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불꽃축제 등 부산 대표 축제의 일정을 확정했다.

세계적인 불꽃축제로 발돋움한 부산불꽃축제는 10월 23~24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제20회 바다축제는 8월 1~8일 해운대해수욕장 등 시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 관련 산업, 문화, 교육이 결

합된 해양문화축제인 제8회 부산항 축제는 5월 29일부터 3일 간, 부산 강서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제16회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은 8월 7~9일 3일 간 각각 개최한다.

이밖에 2016년 해맞이 축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각각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호영 기자



#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봄 맞이 스파힐링 여행 '순다리 스파' 패키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순다리 스파(Sunday Spa)' 패키지를 선보인다.(2015. 4월 1일~4월 30일, 일~금 한정)

산스크리트어로 '아름다운 여자'를 의미하는 '순다리(Sunday)' 스파는 미국의 세계적인 슈퍼모델인 크리스티 툄링턴(Christy Turlington)이 직접 디렉팅 한 천연성분 화장품과 오리엔탈 테라피로 홀리스틱 웰니스를 제시하는 세계적인 에스테틱 스파 브랜드다.

패키지 혜택은 디럭스 룸 1박, 순다리 스파 트리트먼트, 오션스파 씨메르(Ocean Spa Cimer) 및 아이 온수 오션 풀 무료 이용, 플라워 디퓨저 및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오션 블라썸 라운지(Ocean Blossom Lounge)이용, 국제시장 및 야시장 투어 등을 할 수 있는 레오(LEO)투어 프로그램 참여, 2015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가격은 30만원 부터이다. (세금 봉사료 별도, 객실 뷰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 1일 10실 한정)

■ 객실 문의 및 예약 : 051749-2111~3

# 해운대그랜드호텔 'The G-Family Package'

해운대그랜드호텔이 가족들과 함께 봄바다의 추억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패키지를 선보인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보이는 이번 패키지의 상품구성은 A타입은 디럭스 패밀리룸 1박 기준 시내전망 17만원, 바다전망 20만원이며 로비라운지 라운드의 에프터눈티 세트와 기념품 버츠비 기프트 세이브 더 허니비즈 세트가 무료 제공한다.

B타입은 디럭스 패밀리룸 1박 기준 시내전망 19만원, 바다전망 22만원이며, 중식당 만리성 세트메뉴오래가자탕수육, 칸풍기 중 선택,8식사 3가지자장면, 찜빵, 볶음밥 중 선택 점심, 저녁 자유 이용과 기념품 버츠비 기프트 구성이다. (세금, 봉사료 별도 / 금, 토, 공휴 전일 5만원 추가) 한편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피트니스 및 대수영장 무료 이용이 가능(피트니스 성인 2명, 대수영장

성인 2명 / 13세 이하 어린이 2명)하며, 식음료 영업장 10%, 사우나 50% 할인, SEA-LIFE 부산아쿠아리움 20% 할인, 동부렌트카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 객실 문의 및 예약 : 051740-0555



# 부산지역 곳곳에서 벚꽃축제 즐긴다

개나리·진달래·벚꽃이 차례차례 꽃눈을 띄우며 봄을 알리고 있다. 개나리는 지난 16일 꽃망울을 터뜨렸고 진달래는 18일부터 개화했다. 벚꽃은 28일 개화해 4월 초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벚꽃이 만개하면 부산 곳곳에서 꽃축제가 펼쳐진다. 벚꽃축제의 시작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은 29일 '제7회 삼락벚꽃축제'가 열린다. 낙동강 제방 위 벚꽃길을 따라 재활용 공예품 전시, 팸페라 등 거리공연, 옛날 학용품, 생필품 전시, 나눔의 장터 등이 열린다. 공원 중앙광장에서는 초청가수 공연, 모듬북·아코디언 연주, 주민노래자랑 등 문화공연이 열린다. 풍선아트·천연염색·페이스페인팅 같은 체험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첫째주 주말에는 서구 서대신4동 꽃마을 일원에서 '꽃마을로 벚꽃축제'가 열린다. 다비다모자원부터 꽃마을까지 구간에 공연무대와 체험부스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도토리묵과 파전 등을 맛보는 먹거리장터도 선다.

부산에서 가장 긴 벚꽃길인 대저생태공원 벚꽃길에서도 축제가 열린다. 강서구는 다음달 3~5일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 '2015강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와 '제15회 대저토마토 축제'를 연다. 3일 오후 5시부터 걷기대회, 여성합창단·전자현악공연, 불꽃놀이, 초청가수 공연, 노래자랑, 사생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 대형 토마토스파게티 만들기, 토마토 경매 등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4월 5일에도 영도·금정구에서도 벚꽃축제가 열린다.

영도 청학동 해돋이 배수지 일원에서는 '제9회 청학벚꽃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비누 꽃송이 만들기, 냅킨공예, 송사탕·팝콘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연다. 같은 날 금정구 서곡초등학교~서동도서관 구간에서는 서·금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병근)가 주관하는 '제2회 윤산벚꽃축제'가 개최된다. '윤산으로 소풍가자'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공연과, 노래자랑, 목판화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리다.

부산의 대표적인 벚꽃명소인 달맞이언덕에서도 축제가 열린다. 해운대구는 다음달 11일 '문탠로드8벚꽃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또 15일경에는 KBS부산방송국 뒤쪽 금련산길이 벚꽃이 만개한다.



김부영 기자

## 남해와 동해, 난류와 한류가 뒤섞이는 곳, 겨울과 봄 사이 제철의 맛을 품은 기장미역, 다이어트에도 탁월

봄과 겨울 사이에서 미역은 차갑고 시원하다. 생미역이 특히 그렇다. 겨울부터 봄, 5월까지 제철을 맞고 있는것이 기장미역이다.

기장 앞바다의 바닷물이 시원하면서 차다. 수많은 스티로폼 부이들이 초동생들처럼 출몰해 물결에 순하게 넘실대고 있었다. 바다의 미역 밭이다. 옥빛으로 투명하고 차가운 물속에 미역들이 빗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미역의 대명사는 기장 미역이다. 시퍼렇게, 기장 미역은 실이 아저랑이 움직이듯 물속에서 친척히 일렁거렸다.

기장 미역은 깊고 거친 기장 바다의 맛을 품었다. 남해와 동해, 난류와 한류가 만나고, 아랫물과 윗물이 왕성하게 뒤바뀌는 이 바다는 꽤 깊고 거칠다. 빠르고 강한 조류와 수직 순환하는 물살에 미역은 상하좌우로 흔들려 맛이 되레 가일층해지는 것이다. 원도 미역(국내생산 95%)보다 기장 미역(국내생산 5%)이 더 좋다는 것은 이러한 기장 바다의 거친 특징 때문이다.

두호마을 앞바다의 미역 양식장은 모두 10.1ha. 미역 농사는 바다물이 차가워지는 10월 중순~11월 초에 시작된다. 배양한 미역 포자를 사 가지고 외 길이 12~16mm로 지르면 빗줄에 '김이' 바다에 띄운다. 처음 포자들은 기껏 손톱 크기머리 크기에 불과하지만 빗줄에 '김은 날'로 부터 100~110일이 지나 수확할 때면 1.5~2m 길이로 1천 배 넘게 비약적으로 커 있다. 바다가 미역을 다 키운다. 햇빛을 잘 받으면 상추의 맛이 좋듯 미역도 태양열을 흠뻑 받아야 곱이 새끼말개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상품(上品)이 된다. 가로 세로 각 100m, 1ha 넓이에 원래는 5m 간격이어야 하지만 2m 간격으로 촘촘하게 바둑판의 가로 세로 줄처럼 50줄씩 놓아 미역을 양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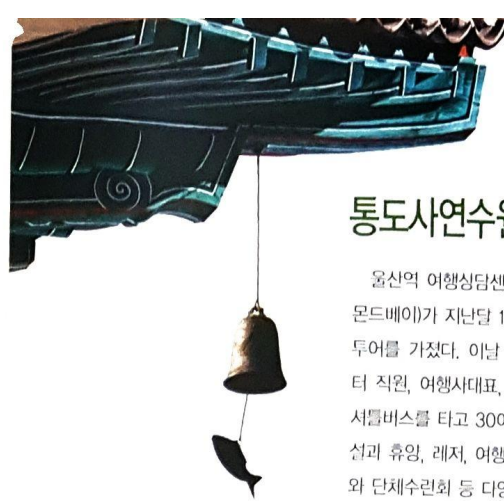
기장 미역을 만드는 것은 전부가 노동이다. 잠정 세 사람이 새벽 3시 30분에 나가 오전 10시에 돌아올 때 미역 100단을 채취해 오고, 그걸 뚝에서 이틀간 말리고 40도를 유지한 건조기에 넣어 또 12시간을 말린다.

미역을 어떻게 먹게 되었을까? 고래가 새끼를 낳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미역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고는 산모에게 먹이기 시작했다는 옛 기록이 예사롭지 않다. 생것일 때는 갈색, 말리면 검은색, 끓는국에 넣으면 칙색으로 변하는 미역의 변색(變色) 또한 예사롭지 않다. 미역의 효능은 많다. 다이어트에 탁월하다는 것만 들먹이겠다.

미역은 바다의 신기다. 그 신기를 우리는 시원의 기억처럼 생안날 꼭 접하곤 한다.

두호마을 뒤쪽 언덕배기에 250~300년 된 소나무 어섯 그루가 어우러진 '기장 죽성리 해송'(부산시기념물 제50호)이 있다. 소나무들은 오랜 세월 어부들이 미역을 따고 생안날 미역국 먹는 사람 세상을 지켜보며 서 있다. 돌아오는 길, 기장시장에 들르니 제철의 기장 미역이 시장 좌판 위에 햇살을 받아 싱싱하게 번득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생미역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김봉우 bijusar@hanmail.net



## 통도사연수원 · 코레일과 함께 하는 힐링여행

울산역 여행상담센터(센터장 이미경) 통도사 연수원, 진해&리조트(삼주다이아몬드베이)가 지난달 13~14일(박 2일간) 통도사 힐링여행/사찰순례 힐링캠프 팸투어를 가졌다. 이날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KTX여행상담센터 직원, 여행사대표, 언론사기자 등 40여명이 울산역에 도착, 통도사에서 보낸 셔틀버스를 타고 30여분만에 통도사 연수원에 도착했다. 호텔식 숙박 및 부대시설과 휴양, 레저, 여행뿐 아니라 관광서, 기업, 단체 등의 각종 세미나 및 전시회와 단체수련회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장소로 각광 받고 있는 통도사 연수원은 힐링투어와 자연음식 체험을 통한 윈스톱 문화체험관광 제공한다.



▲ 통도사 제철 명품: 원산지인 제철미역, 조식 ▲ 통도사 연수원

### 배추잎 쌈, 감자 웅심이

5인1조가 된 힐링캠프 참가자들은 양축총림 통도사 자연연구소 원장님의 이혼경의와 실습강의에 이어 체험실습에 들어갔다. 배추잎 쌈을 만들기 위해 배추잎, 참깨, 들기름, 소금, 묵이버섯, 숙주나물 그리고 감자 웅심을 만들기 위해 감자, 청홍고추, 밀가루, 소금, 애호박, 다식물(다시마, 무, 각종버섯) 등을 지금받아 직접 만들어 먹는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보기 드문 힐링캠프였다.

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요양, 자정암을 둘러 본 뒤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불보사찰인 통도사에서 문화해설사로 부터 1730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통도사의 불교문화를 듣고 난 뒤 부산 율호동 삼주다이아몬드베이를 이동했다. 삼주다이아몬드베이가 운영하는 72미터 규모의 대형카타마란 요트(92인승)는 지인 그대로의 바닷물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세일요트로 바다를 가로 지르는 항해의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스테이지, 미니바, 영상시선과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 메가요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경은 해운대 마린시티, 광안대교, 수변경관공원, 해운대 아이파크 등 아름다운 아경과 섹스폰 연주 그리고 뽀빠이 저녁식사를 끝내고 문화방송 내 삼주아 줄에서 최찬우 매직쇼 관람 후, 다이아몬드베이 자회사인 울산 진해호텔리조트에서 숙박, 아침식사를 마치고 울산해양박물관 관람과 등을 둘러보고 난 뒤 울산역에서 힐링 팸투어 세무인생을 모두 끝냈다.

김경호 기자

### 통도사 힐링캠프 사찰순례 예약문의

서울역 여행상담센터	02-3149-3333	부산역 여행상담센터	051-440-2513
대전역 여행상담센터	042-253-7360	울산역 여행상담센터	052-254-7785
대구역 여행상담센터	053-930-2223	통도사 연수원	055-382-7112

# 무소유 법경스님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3월이 오면,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린  
무소유 법정스님을 생각한다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3월이 오면(법랍 56세 세수 79세) 무소유 법정스님을 생각한다.

2010년 3월 11일 길상사에서 입적한 법정 스님의 삶은 한마디로 비우고 버리는 삶이었다. 비우고 버리고 낮춤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이다.

스님은 생전 “우리는 필요에 따라 소유한다. 하지만 그 소유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을 갖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에 얽매이는 일, 그러므로 많이 가지면 그만큼 많이 얽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속 명리와 번잡함을 싫어했던 스님은 송광사 불일암 이후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은둔의 삶을 살았다.

법정 스님은 1993년 열반한 성철 스님에 이어 대중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스님이다. 그러나 평생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자신이 창건한 길상사의 회주를 한동안 맡았을 뿐 그 흔한 사찰 주지 한 번 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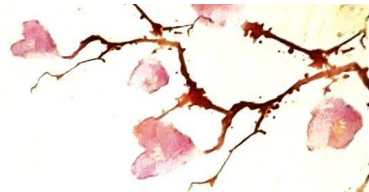
속세 나이 23세, 출가에 대한 스님의 변은 유명하다.

“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 뿐일때 1954년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당대 선승 효봉스님(1888~1966, 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한 후 초대 종정)을 만난 자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전남대 상과대 3학년으로 싸락눈이 내리던 어느날 식발하고 먹물웃으로 갈아 입고 다음날 통영 미래사로 내려가 부목(負木·땀감을 담당하는 나무꾼)부터 시작해 행자생활을 했다. 당시 환속하기 전의 고은 시인 등이 함께 공부했다.

법정 스님은 이듬해 사미계를 받은 후 지리산 쟁계사에서 정진했다. 28세 되던 1959년 3월 양산 통도사에서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고, 1959년 4월 해인사 전문강원에서 명봉 스님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0년 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통도사에서 운허 스님과 함께 ‘불교사전’ 편찬에 참여하다 4·19와 5·16을 겪었다.

이 시절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과 유신철폐 운동에 참여했던 스님은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후 반체제운동의 의미와 출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고민하다 다시 결망을 짊어졌다.



“삶의 종점인 선달 그믐날이 되면 누구나 자신이 지녔던 것을 모두 놓아두고  
가기 마련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출가 본사 송광사로 내려온 법정 스님은 1975년 10월부터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다.

1976년 산문집 ‘무소유’를 낸 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불일암 생활 17년째 되던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왔다.

법정 스님은 평소에는 강원도 산골에서 지냈지만 대중과의 소통은 계속했다. 특히 1996년 고급 요정이던 성북동의 대원각을 기부받아 이듬해 12월 길상사로 탈바꿈시켜 창건한 후 회주로 주석하면서 1년에 여러 차례 정기 법문을 들려줬다. 법정 스님은 2003년 12월에는 길상사 회주 자리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기 법문은 계속하면서 시대의 잘못은 날카롭게 꾸짖고, 세상살이의 번뇌를 호소하는 대중을 위로했다.

스님은 해인사에 살 당시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을 가리켜 “빨래판 같이 생긴 것이요?”라고 묻던 아주머니 말을 듣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남아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경험은 부처님 가르침을 쉬운말과 글로 옮기는 밑바탕이 됐다.

법정 스님의 문명(文名)을 널리 알린 작품은 무엇이까. 누구도 주저없이 ‘무소유’(1976년)를 꼽을 것이다. 소유와 집착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한 ‘무소유’를 비롯해 35편의 수필을 모은 이 책은 현대 한국 수필의 대표격으로 평가받는다. 인기도 많아 34년 동안 180쇄를 찍었고, 지금까지 330만부가 팔렸다.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무소유’는 스님이 평생 동안 강조했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가는 것도 없다는 가르침)’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명언에서 시작한 글은 당시 스님이 애지중지했다는 난초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간다. 장마 후 쏟아지는 햇볕 아래 화분을 놓고 왔다는 생각에 어둥지둥 거처로 돌아갔다는 스님. 그는 이 일화를 회상하며 “소유가 인간을 싸우게 하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無所有)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후일도 없다.”

스님은 그 이후에도 무한경쟁과 탐욕의 시대에 우리가 지닐 마음의 자세에 대해 논한 명문을 많이 남겼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오두막 편지’ 등은 출간되자마자 각박한 세상살이에 찌든 현대인들의 마음을 여루만졌고, 모두 큰 인기를 얻었다. 2007년 한 차례 병으로 입원한 후 쇠약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느낀 심정을 담담하게 표현한 ‘아름다운 마무리’(2008년)도 또 다른 대표작. 그는 “놓아 두고 가기! 때가 되면, 삶의 종점인 선달 그믐날이 되면, 누구나 자신이 지녔던 것을 모두 놓아두고 가게 마련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미리부터 이런 연습을 해두면 떠나는 길이 훨씬 출가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의 글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담았으면서도,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한 문학평론가는 “스님 특유의 뉘그러면서도 격조 있는 필치도 감동에 벅 배 힘을 보탤다”고 말했다.

스님은 폐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책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은 ‘애서가’였다. ‘내가 사랑한 책’을 펴냈고, 이 책이 결국 법정 스님의 유적이 되고 말았다. ‘내가 사랑한 책’은 스님이 여러 곳에서 언급했던 300여 권의 책 중에서 50권의 책을 직접 골라 소개한 것으로, 종교 관련 서적 외에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사티쉬 쿠마르의 ‘끝없는 여정’ 등 현대명명의 효율성에 이익을 제기하며 보다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스님은 출가할 당시를 떠올리며 “낙담하지 못한 집안에서 어렵사리 모은 책들을 버리고 떠나는게 못내 망설여졌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김경호 btjbusan@hanmail.net

# 죽음을 앞둔 친구가 제일 가보고 싶다면 보길도엔 지금 동백꽃이 한창

어여 이리 와서 한자리 하시게...  
바쁘실 텐데 오늘 이리 시간을 내 주어서 정말 고맙네.  
혹 자네가 오늘 안 보였다면 내가 얼마나 섭섭할 뻔 했는가...  
차린 건 없지만 내가 술 한 잔 따름세... 같이 한잔 하세나  
그 전에 같이 했던 술자리들은 이미 흘러간 세월 속의 추억이  
되어 버렸고, 다음 번 술자리 만남은... 더 이상 내가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다네 -중략-



부산시관광협회 부회장 장순복  
(대륙항공여행사 대표)

간암으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35년 지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다. 여행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평생을 함께 했었고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 없다며 틈만 나면 함께 길을 떠났다. 부처님 오신 날만 문을 연다는 문경 봉암사, 세계 최대의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여수 사도, 안동 하회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부용대 등 수많은 여행지를 함께 다니면서 품격있는 인문학 기행을 꿈꾸던 시간들은 무유도원도로 남았다. 죽기 2주일 전인가 죽음의 그림자를 본 필자가 물었다. "평생 함께 여행 다니며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회상에 잠기던 그는 해남 땅골에서 배를 타고 진도북 두드러며 갔던 보길도를 꼽았다.

보길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 일생을 통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문명을 떨쳤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선비 고산 윤선도와 역사적 라이벌이었던 우암 송시열이다. 고산은 선조 20년 1587년에 태어나 현종 12년 되는 1671년에 세상을 떠났고 우암은 선조 40년 1607년에 태어나 숙종 15년이 되는 1689년에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 나이 차가 스물살이 넘지만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살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겪으면서도 임금 면전에 대놓고 돌직구를 날리는 당당함으로 살아 갔다.

우암이 벼슬길에 나섰을 때 고산은 사헌부 지평이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다가 모함으로 파직당하여 해남에 머무르고 있

을 때였다. 두 사람 다 문장과 서체에 뛰어났으나 강직한 성품 때문에 귀양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우암 송시열은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될 때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 잠시 머물렀다.

우암 송시열은 보길도에서 그 때 남긴 시 오언절구가 선백리 바닷가 바위에 새겨져 있어 글썽바위라 부르고 있다. 83세의 늙은 몸이 거칠고 먼 바닷길을 가노라 라는 시가 새겨진 선백리 바닷가는 보길도의 3대 명승으로 손꼽힐 만큼 뛰어난 풍광을 보여준다.

글썽바위 절벽에 서면 소안도의 맹선해변과 상록수림 그리고 맹선 방파제의 쌍등대가 너무도 아름다워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찾고 있다. 고산 윤선도는 보길도에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한시를 남겼다.

한국의 3대 정원이라 불리는 세연정, 세연지 회수담 옥저담을 배경으로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부용동원림은 한 폭의 그림이다. 도르래를 달아 필요한 물품들을 날랐다는 하늘정원 동천석실은 고산 스스로가 신선이 머무르는 곳이라 칭할 정도로 그 풍광이 뛰어나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여행지다. 라고 고산 윤선도의 5대손 윤위는 보길도 여행을 남겼다.

예로부터 동방의 명승지로는 금강산 삼일포와 보길도요, 그 으뜸 아름다운 삼일포보다 보길도라는 기록이 선대로부터 전해졌으며 동천석실 오르는 길의 동백숲을 으뜸으로 꼽았다. 보길도는 지금 동백이 피어 붉음이 절정에 이르렀다. 사료거에 풍악을 대동하고 세연정에 앉아 기희(姒姬)들이 너를너를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간의 걱정을 잊기 위해 몸무림 찻던 고산 윤선도는 광해군 8년(1616년) 성균관 유생으로 집권 세력의 최상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상소로 시작된 그의 유배 생활은 장장 20여년이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화려한 은거생활을 누렸던 고산 윤선도는 85세로 타계했다.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와 함께 조선 3대 가인으로 불리웠던 고산 윤선도는 보길도와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에 있는 금쇄동에 원림을 만들었다. 고산 윤선도가 신선처럼 살다간 보길도는 원도 화흥포에서 18.31km, 해남 땅골에서 12km 떨어져 있다.



바다에 봄의 물결이 넘실댄다. 제철에 맛보는 봄 별미, 이 맘때를 놓치지 말고 무작정이면 어떤가, 봄 별미 찾아 여행 떠나자!

### ●● 충남 서천·보령 주꾸미

3, 4월에 잡히는 주꾸미는 알이 딱 차고 살이 올라 1년 중 가장 맛있다. 낙지처럼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낙지는 다리 길이가 최대 70cm에 달하는데 비해 주꾸미는 10~20cm 정도로 다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봄철 서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데, 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주꾸미의 먹이가 되는 새우가 바다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주꾸미를 먹으려면 충남 서천이나 대천, 보령이 제격이다. 주꾸미는 수놓은 색깔이 연하고 암녹은 머리에 그득한 주꾸미 일명 '주꾸미 쌀밥' 씹는 재미가 일품이다. 싱싱한 회로 먹으면 산낙지와는 또 다른 별미를 느낄 수 있다. 삶아서 초고추장을 찍어 먹거나 볶음, 조림 등 여러 가지 요리에 두루 잘 어울린다. 낙지보다 연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사부사부로 먹을 수도 있다. 조개 국물에 퐁나물과 버섯을 썰어 넣고 주꾸미를 살짝 데쳐 먹는 사부사부도 감칠맛이 난다. 주꾸미 먹물이 풀어진 사부사부 국물에 칼국수를 삶아 먹는 맛도 끝내준다. 쫄깃한 식감의 주꾸미 살은 물론 탱글탱글 씹는 맛이 일품인 알은 밥 한 공기를 푹딱 해치우게 한다. 주꾸미는 필수아미노산인 타우린이 풍부해 주꾸미 한 마리면 웬만한 피로 해소 음료 한 병 못지 않은 타우린을 섭취할 수 있다.



● 전남 벌교 참꼬막

벌교역 바로 앞에 있는 벌교시장에서는 4, 9일에 벌교장이 열리는데, 이 장에는 시장 주변으로 무시로 난전이 펼쳐진다. 산지의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여행자의 특권. 꼬막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이다.

참꼬막은 새꼬막보다 훨씬 고급으로 친다. 맛도 엄연히 다르다. 마치 기와지붕의 굴곡처럼 조개의 돌기가 더 두드러지고 단단한 참꼬막은 톨니바퀴 같은 입을 앙다물고 있다. 조개치고 꽤 비싼 가격을 당당히 붙이고 있는데 그마저도 없어 못 파는 지경이니 늘 귀한 대접을 받는다. 탱글탱글한 참꼬막은 새꼬막 가격의 2, 3배를 쉬이 넘는다. 둘은 걸모습에서 풍기는 포스도 다르지만 속살의 '때갈'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참꼬막은 '뺨얼건' 피를 가득 품고 있다. 삶을 때 그 육즙을 잘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참꼬막을 맛있게 먹는 비결이다.

참꼬막에 묻은 뽕을 씻어내지 않고 파는 것은 참꼬막의 육즙과 신선도를 지키기 위한 것. 참꼬막에게 공기와의 같은 개흙이 씻겨버리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참꼬막은 민물에 해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많이 씻어내지 않는다. 많이 씻어내면 육즙이 빠져나갈 수 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차가운 물 한 컵을 부어 식혀준 다음 바로 꼬막을 넣고 불을 줄인다. 꼬막 살이 한쪽 껍데기에만 붙도록 한 방향으로 저어주면 2, 3분이 지나 꼬막이 한두 개 입을 연다. 그때 바로 꺼내야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다.

벌교역과 시장 주위로는 꼬막정식을 파는 식당들이 많다. 꼬막정식은 삶은 꼬막, 꼬막무침, 양념꼬막, 꼬막된장국, 꼬막전 5가지가 어느 식당이나 비슷하게 기본으로 나오고 가격도 1만5천원선으로 맞춰져 있다.

● 통영 도다리 썩국, 멍게

봄 향기로 채우는 썩국 통영 도다리가 만났다. 이름하여 도다리 썩국. 봄의 별미 중 별미다. 도다리는 양식이 없다. 수족관에서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통영여객터미널 뒤로 넓게 자리 잡은 서호시장은 통영 시민의 먹거리 장터일 뿐 아니라 길손의 발길을 묶는 통영의 명소다. 3, 4월에 제철을 맞는 도다리며 멸치며 사시사철 볼 수 있는 볼락과 도미, 끝물인 아귀와 간재미를 비롯해 광어와 우럭, 농어, 방어와 같은 횡감까지 바다의 생명력이 펄떡거린다.

4월 말에 가장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도다리는 1월 중순이면 나오기 시작해서 6월까지 맛이 좋지만 썩과의 궁합을 생각하면 3, 4월이 가장 맛있다. 통영의 도다리 썩국은 맑은 된장 국물에 썩안을 넣어 도다리 썩국을 만든다.

전국에 유통되는 멍게 중 70%가 통영과 거제 앞바다에서 난다. 멍게는 2월 말부터 수확, 5월에 잡은 멍게회 향이 좋다.

멍게는 불철에 향과 맛이 가장 그득하다. 잃어버린 입맛을 찾는 데 멍게만 한 것도 없다. 멍게는 지방질이 거의 없어 해삼, 해파리와 함께 3대 저칼로리 수산물로 꼽혀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다. 노화 방지와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알려졌다.

멍게비빔밥에는 초장이나 간장처럼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참기름과



깨만 넣는다. 채소를 살짝 곁들이기도 한다. 멍게가 내뿜는 특유의 싱그러운 향과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일품이다. 한편, 멍게를 열은 소금물에 살짝 씻어 숙성시킨 '멍게 젓갈'은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 똑딱 비우게 하는 밥도둑이다.

● 기장 대변향 멸치회

부산 기장시장은 봄에는 미역과 멸치로, 가을에는 갈치로 유명하다. 올봄에도 여느 봄처럼 좌판마다 미역과 멸치가 넘쳐난다. 기장시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10분만 가면 멸치잡이로 유명한 대변향이다. 매년 4월 중순에 멸치축제가 열리는 기장 대변향에서 생산되는 왕멸치는 국내 생산량의 65~70%를 차지할 정도로 수확량이 많다.



대변향에서 잡히는 멸치는 멸치볶음을 해 먹는 잔멸치가 아니라 회로 먹고 찌개 끓여 먹고 쌈 싸 먹는 대멸치. 대변향 인근으로 60, 70개의 멸치횟집이 즐비한데 보통 항구의 횡집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횡집이 멸치회와 무침이 메인 메뉴다. 멸치회는 다른 생선회와 달리 구수한 맛이 일품이고, 멸치회무침은 새콤달콤한 양념과 미나리 등의 아삭한 봄 채소가 생멸치의 구수한 맛과 잘 어우러져 입이 호강한다. 회무침에 갖은 양념과 채소를 섞어 넣고 밥 한 그릇 삭삭 비벼 먹는 맛도 일품이다. 멸치를 갈치조림처럼 고춧가루 넣고 자작하게 조리서 갯임이나 상추에 싸 먹는 멸치쌈도 놓칠 수 없다.

● 울산 정자항, 영덕 축산항·강구항, 울진 후포항·죽변항, 등해 묵호항 까지 이어지는 대게 맛따라...

대게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대게라고 이름 붙였

을 것 같지만 실은 8개의 다리가 대나무처럼 곧게 뻗었다고 해서 대게다. 일단 껍질을 만져봤을 때 빈 곳 없이 살이 꽉 찬 것이 싱싱하고 좋은 게다. 살이 꽉 차고 싱싱한 대게일수록 게장(게의 내장)의 색이 황색에 가깝다. 하품은 게장의 색이 시커먼 흑장이고 상품일수록 녹색, 황장 순으로 게장 색이 밝아진다.

대게 하면 반사적으로 영덕이 떠오르지만 동해의 다른 항구에서도 얼마든지 실한 대게를 먹을 수 있다. 실제로 동해의 묵호항이나 울진의 죽변항과 후포항, 영덕의 축산항과 강구항으로 들어오는 대게잡이 배들은 같은 연안에서 조업한다.

굳이 비싼 횡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위판장이나 노점에서 다리가 한두 개 떨어져 상품성이 없는 대게 몇 마리를 저렴하게 사서 찌 먹어도 된다. 묵호항 묵호시장에는 찜만 짜주는 집이 많다. 짜주는 값이 1만원, 거기에 1인당 2, 3천원 정도의 초창 값을 더 내면 채소 등이 함께 나온다.

울진 죽변항에는 항구 앞에 일렬로 늘어선 80여 곳의 대게집이 있고, 후포항 인근에도 백화회센터, 후포수산물센터 등 5, 6개의 대게 타운이 띄엄띄엄 있다. 영덕 강구항은 그 규모부터 다른 항구와는 사뭇 다르다. 20톤 이상의 큰 배들이 며칠씩 조업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큼지막한 대게를 1천여 마리씩 쏟아낸다. 저렴하게 먹는 것이 목적이란 항구 끝자락으로 가자. 동광어시장빌딩 1층에서는 대게를 저렴하게 팔고 2층과 4층에서는 1만원을 내면 사온 대게를 짜준다. 울진 후포항과 영덕 강구항에서는 매년 4월경 울진 대게축제가 열린다.



김동호 [kimdongho@naver.com](mailto:kimdongho@naver.com)



관광협회회장 이태섭

## 新외식문화-광안리 해수욕장의 中心!!

### GUESS WHO? 는

1991년 4월 9일 오픈한 전통있는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광안리 바닷가 테마거리 중앙에 있으며,  
 광안대교가 다 보이는 야경과 미국적인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부산의 명물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항상 타 업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근성을 가진 직원들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 전통의 맛을 오래도록 지키며  
 항상 시대에 걸맞는 멋진 맛집으로서 항상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식과  
 아늑한 휴 분위기를 일품입니다.  
 항상 50대 이상 주자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맛과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GUESS WHO?

COFFEE & PIZZA FAMILY RESTAURANT

3F 노래찾는사람들	2F 日式  긴가	1F GUESS WHO?	3F Song of Joy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1F 삿보로하루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00-1번지  
 Tel. 051)757-1213~4



일상탈출을 꿈꾸며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곳들, 구석구석 눈여겨볼 세계의 명소 찾아볼 능숙한  
 박물관을찾는사람들과 대한항공이 함께합니다!!

## 중국 최고의 명승지, 신선들이 모여사는 신선거, 설두산 매주 목요일 출발 3박 4일 하일라이트

■ 여행기간 : 매주 목요일 출발 3박 4일


■ 여행비 : 1인당 849,000원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식사
제 1 일 (목)	부 산 상 해 서 당 신선거	KE875 전용차량	06:40 08:40 09:20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종합안내소 앞 집결 중국 수속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 상해 국제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 운하를 가로지르는 15개의 석조다리중 가장 유명한 환수교 ▶ 명대 주씨가족의 사택인 서원 ▶ 단추의 고향으로 불리우는 서당의 조개단추를 볼 수 있는 단추 박물관 ▶ 옛 운하를 따라 서당의 건축물과 마을 풍경을 감상하는 나룻배놀이 HOTEL : 신선거 안복호텔 혹은 동급 - 준5성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제 2 일 (금)	신선거 봉 화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신선거(신선들이 모여사는 동네) 풍경구** 해발 800미터이며 기이한 산봉우리, 깎아지른 듯한 절벽, 맑고 낮차가 높은 폭포, 유유히 흐르는 등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갖춘 풍경구입니다. 장군암, 수미인, 관세음보살암 등 기암괴석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화산암의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북해 케이블카로 정산등정 ▶ 잔도를 따라 북관대 - 삼상대 - 동관대 - 중관대 - 천교 - 천원대 - 천운대 관음봉 - 남관대 - 남천케이블카로 하산 ▶ 대안 초대 총통인 장개석의 고향마을을 창씨코거 ▶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맛사지 체험 HOTEL : 영파 포에버비스 호텔 혹은 동급 - 준5성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제 3 일 (토)	봉 화 설두산 상 해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설두산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설두산 풍경구** 아름다운 산들과 맑은 강물로 둘러싸여 예로부터 "세외도원"이라 불리었습 니다. 장개석의 고향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수려한 폭포들로 이어 지고 있으며,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상은담 - 중은담 - 하은담 - 원양폭포 - 천장폭포(모노레일+케이블카) ▶ 설두산 정상에 있는 장개석 여류 별장 묘고대 ▶ 불교 성지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미륵불상이 있는 설두사 항주만대교를 통해 상해로 이동(약 3시간 소요) ▶ 화려한 야경을 뽐내는 상해의 유람 황포강유람 + 외탄관광 HOTEL : 상해 골든리치 호텔 혹은 동급 - 4성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식
제 4 일 (일)	상 해 부 산	KE876	11:00 14:00	호텔 조식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상해공항 출발 - 부산 향차 부산신도착 후 안녕히..	조 : 호텔식

\* 포함 : 왕복항공료, TAX, 유류할증료(4월기준), 호텔숙박비(2인실), 전용차량비, 전일정 식사비, 관광지 입장료, 단체여행자보험, 중국단체비자, 가이드 및 기사비  
 \* 불포함 : 기타개인적인 경비, 매니팅  
 \* 참고 : 여권유효기간은 유효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국내 · 해외여행 안내 : 다음카페(Daum Cafe) 박물관을찾는사람들 담당자일정 참조  
 ★ 참가문의 : 대륙항공여행사 051) 463-0034 / 박물관을찾는사람들 051) 463-9009

# 설마... 했던 여행사 사기! 여행공제회 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남상만

망소사!!! 호텔예약이  
안 되어있다구요???



### 여행공제회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운영하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이며, 여행객에게는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여행공제회에서 보상하는 내용

여행사에서 여행일선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해당 여행사에서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는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 여행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관광객과의 여행일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관광객이 회원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인하여 회원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 여행사로 인한 여행객 피해사례



출발 당일 여행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여행을 못 갔어요.

출발 전 여행요금만 받고 여행사가 잠적했어요.

여행지 도착 후 호텔이 예약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 757 7491 팩스 02 757 7490